

2025년 4월 30일 제44호

연구위원 안혜영  
연구위원 김종현  
연구위원 이예린

# HIF 월간 산업 이슈(4월)

## Monthly Industrial Issue

### 산업별 주요 이슈

#### 음식료품 기업별 수출 전략에 따라 미국 관세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 미국의 10% 보편관세 부과로 업황 불확실성이 커지며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식품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
- 대기업은 현지 생산 기반을 보유하거나 수출처 다변화로 미국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나, 중소기업 및 유지·곡류 가공품 업체는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석유화학 위기의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동거나

-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불황은 경기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 정부도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고 있으나 정국 혼란으로 지연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 간 조율을 통한 중복 사업 정리 및 주력 사업 재배치 등의 대응이 시급

#### 조선 고효율, 제품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25년 1분기 실적 '맑음'

- LNG선 등 고부가 선박 중심의 인도와 고효율 지속에 따른 환차익 등을 바탕으로 국내 대형 조선사의 '25년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흐름을 보임
- 국내 조선사는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약 3.5년치 이상의 수주잔량을 확보한 가운데 美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국내 조선사의 중장기 실적은 양호할 전망

# 산업 이슈

## 음식료품

기업별 수출 전략에 따라 미국 관세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 석유화학

위기의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동거나

## 조선

고환율, 제품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25년 1분기 실적 '맑음'

## C10-11. 음식료품

### 기업별 수출 전략에 따라 미국 관세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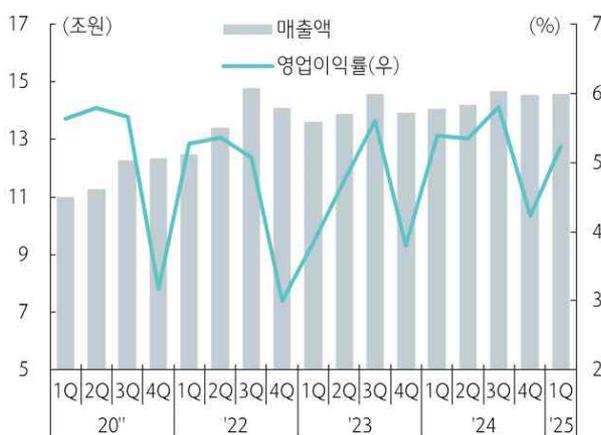
연구원 이예린

※ Summary : 내수 부진으로 해외 시장이 국내 식품업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10% 보편관세 부과로 업황 불확실성이 커지며 식품업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 그러나 주요 식품 기업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하거나 높은 시장 성장세를 보이는 유럽, 호주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있어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유예된 상호관세가 향후 부과될 경우, 현지 생산 및 수출국 다변화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유지·곡류 가공품 업체는 관세 부담에 따른 실적 감소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 ■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식품업의 실적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

- '25년 1사분기 CJ제일제당, 농심 등 주요 식품업 9개사의 합산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나, 내수 부진과 고정비 증가 등으로 합산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할 전망
  - 주요 식품 기업 합산영업이익률 추이(%) : 5.3('22.1Q) → 3.8('23.1Q) → 5.4('24.1Q) → 5.2('25.1Q)
- 해외 시장이 국내 식품업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업황 불확실성이 커지며 수출 주력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
- 특히, 미국은 한국 식품업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5년 1분기 미국향 식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9% 증가한 5.3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액의 19.8%를 차지
  - 미국향 식품 수출 비중(%) : 16.7('22.1Q) → 15.9('23.1Q) → 17.7('24.1Q) → 19.8('25.1Q)
  - 24년 기준 주요 업체 미국 매출 비중 : CJ제일제당 42%, 삼양식품 22%, 농심 16%, 풀무원 14%

그림1 | 주요 식품 제조업 실적



주 : 주요 식품 제조업 9개사 합산 기준, '25.1Q는 컨센서스 기준  
 자료 : Value Search, FnGuide

그림2 | 미국향 수출액 추이



자료 : 농식품수출정보, 하나금융연구소

## ■ 현지 생산과 수출처 다변화를 구축한 대기업은 美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 주요 식품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거나 유럽·호주 등 신규 채널의 성장세에 힘입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농심은 미국 2공장 신규 증설라인을 가동하고 CJ제일제당은 기존 20개의 미국 현지 공장에 더해 '27년 가동을 목표로 신공장 기지를 건설 하는 등 현지 생산을 확대
- CJ제일제당은 유럽 주요 채널 입점 및 신규 카테고리 확대 등으로 유럽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헝가리 신공장 건설을 통해 유럽 지역 성장 기반을 확대
  - '24년 기준 유럽/호주 지역 매출은 전년대비 41%,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14% 증가
- 삼양식품은 수출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 중이나, 건조한 제품 수요 및 달러 강세 등 긍정적 요인과 유럽·동남아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시킬 계획
  - '24년 유럽向 라면 수출액은 1.3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며 시장 성장세가 지속

## ■ 한편, 중소기업 및 유지·곡류 가공품 업체는 관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현재 미국은 한국 제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으나, 향후 유예된 상호관세 25%가 부과될 경우 수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90일 유예 기간 후 상호관세 부과 시, 음식료의 對美 수출은 32.8%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소기업은 현지 생산 기반이 부족하고 낮은 가격 전가력과 제한적인 유통 채널 등으로 관세 대응력이 낮아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수출 감소가 우려
- 뿐만 아니라 유지 및 곡류 가공품 관련 업체는 전체 수출 중 미국向 수출 비중이 각각 64%, 58%에 달하여 관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표1 | 삼양식품의 국가별 라면 수출 비중

(단위:%)	'18	'19	'20	'21	'22	'23	'24
중국	39.0	45.2	41.1	36.7	38.3	30.5	26.3
동남아	37.3	30.7	25.8	26.3	23.1	20.0	17.0
미국	10.2	9.6	15.9	13.8	10.8	16.8	23.0
유럽	5.6	5.3	7.3	8.9	10.6	15.3	17.0
중남미	0.0	0.4	0.3	0.9	1.5	1.8	2.4
중동	0.6	1.3	1.7	3.7	4.9	4.0	4.4
오세아니아	2.3	2.2	1.7	1.2	1.5	2.3	2.3
기타	5.0	5.3	6.2	8.5	9.3	9.3	7.6

자료 : Trass, 대신증권

표2 | 미국 25% 관세 부과 시, 음식료 품목별 수출 영향

(단위: 백만달러)	'24년 미국向 수출액	미국向 수출 비중	관세 부과 시, 수출액 변화
유지가공품	87	64%	-29
곡류가공품	137	58%	-45
빵	97	40%	-32
기타농산가공품(김치)	169	29%	-55
소스류	88	22%	-29
과실류	45	21%	-15
채소류	28	21%	-9
면류	303	20%	-99
주류	68	19%	-22
사탕과자류	35	14%	-11
음료	110	13%	-36
<b>총계</b>	<b>1,216</b>	<b>18%</b>	<b>-398</b>

주 : 25% 관세 부과 시, 음식료업 대비 수출 감소율 32.77%로 계산하여 추정  
자료 : 한국무역협회,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하나금융연구소

## C20. 석유화학

### 위기의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동거나

연구위원 안혜영

※ Summary :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중국발 공급 과잉까지 더해져 장기 불황이 지속중이며 단순히 사이클상 저점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회복이 불가. 기업들도 전례 없는 불황으로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고강도 자구책 마련 중. 정부도 상반기 중 석유화학업 지원 조치 발표를 예고하며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정국 혼란 속에 구조조정은 지연될 전망. 그러나 사업재편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석유화학 기업 간 자발적인 조율을 통해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각 사별 강점을 고려한 주력 사업 재배치 등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 ■ 글로벌 수요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장기 불황 지속

-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최대 수출국 중국의 대규모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국면이 지속 중
  - 팬데믹 이후 중국이 정부 주도下 대규모 석유화학 증설을 단행하여 자급률(에틸렌 기준)이 100%에 근접하게 되자 한국의 對중국 수출 비중은 감소세로 전환
- 석유화학 수출과 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22년 하반기부터 현재('25.1Q)까지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지수와 가동률지수 모두 기준치(2020=100)를 하회
-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도 12개월 연속 손익분기점(\$300/톤)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근 석유화학 기업들의 분기 영업 실적 또한 적자를 기록 중
  - 합산영업이익률(%): -2.5('23.4Q) → -0.3('24.1Q) → 0.5(2Q) → -0.6(3Q) → -1.4(4Q)60%

그림3 | 中 자급률 상승과 한국의 對中 수출 변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연구소

그림4 | 에틸렌 스프레드와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KOREA PDS, Value Search, 하나금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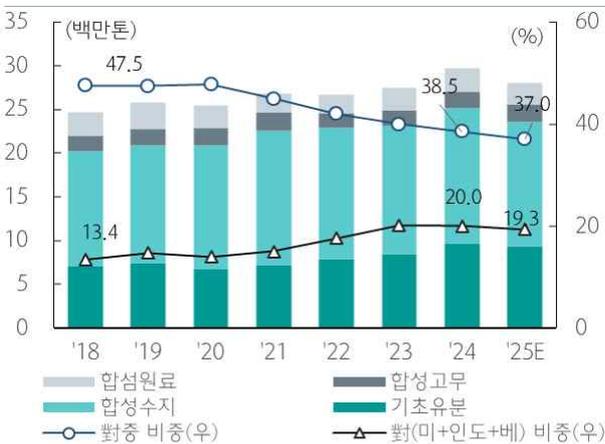
## ■ 이번 불황은 산업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번 불황은 단순히 경기 사이클상 저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와 범용제품에 집중된 사업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
- 현재 수출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2위 수출국인 미국은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고 베트남과 인도 등은 아직 수요 시장이 작아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
  - 미국으로부터 고율 관세가 부과된 베트남, 인도의 對미국 수출이 위축될 경우, 한국의 베트남 및 인도向 석유화학(중간재) 제품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
- 또한 중국 신규 설비 대부분이 대형 COTC(Crude Oil to Chemical, 정유·화학 통합 공정)기반으로 국내 석유화학 공정 대비 적어도 20% 이상 원가 우위 확보가 가능
  - 최근 사우디, UAE 등 중동 산유국들도 자국 원유를 활용한 COTC 기반 설비를 증설 중
- 국내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중동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으나 범용제품 특성상 가격 격차를 상쇄할 정도의 차별화도 어려워 향후에도 수요 회복은 난망
  - 대규모 증설이 일단락 된 '28년 이후 글로벌 석유화학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경쟁력이 저하된 한국은 시장 회복의 기회를 확보할 수 없어 글로벌 점유율은 더 축소될 전망

## ■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자발적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

-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자 그동안 경기 사이클 하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록해왔던 석유화학 기업들은 전례 없는 보릿고개를 경험 중
- 실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7개 사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전고점이었던 '21년 10%를 상회했으나 '22년 1.9%로 급감한데 이어 '23년 이후 (-) 지속 중

그림5 | 국내 석유화학 수출 및 국가별 비중 전망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연구소

그림6 | 글로벌 석유화학 수급 전망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하나금융연구소

- 석유화학은 매출 규모가 수십조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으로 현재의 불황이 석유화학 계열사가 있는 주요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 이에 석유화학 기업들은 비수익 자산 매각, 사업재편, 인력 감축 등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 LG화학은 대산·여수 공장의 스티렌모노머 라인과 나주 공장의 알코올 생산을 중단했고 롯데케미칼은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을 청산하고 파키스탄 PTA 자회사를 매각

### ■ 정부도 상반기 중 석유화학 지원 조치 발표를 예고하며 구조조정에 시동

-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구조적 불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고조
  - 4월 11일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최근 BCG와 진행한 석유화학 사업재편 컨설팅 용역을 마무리한 후 정부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
- 언론에 공개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는 생산구조 개선, 원가경쟁력 강화, 손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권고했고, 정부는 기업에 산업용 전기료 감면, R&D 및 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 지출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
  - 다만 정부 주도의 사업재편 지원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
- 정부와 석유화학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는 확고하나 기업 간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데다, 현재 대선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시 구조조정은 지연될 가능성 존재
-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섬유산업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 조율을 통해 먼저 구조개편에 나서 산업단지별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각 사별 강점을 고려한 주력 사업 재배치를 통해 현재의 위기에 대응할 필요<sup>9)</sup>

그림7 | 국내 주요석유화학 기업 실적 전망



자료 : Value Search, 하나금융연구소

표3 | 석유화학 구조조정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

기업 권고사항	생산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li> <li>• 범용제품 내수 비중 70% 달성</li> </ul>
	원가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조달 효율화</li> <li>• 공장 내 자기발전 및 유틸리티 연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li> </ul>
	협업 및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석유화학 기업과 협업 검토</li> <li>• 지속 손실 발생 설비 구조조정</li> </ul>
정부 예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고부가 제품 전환을 위한 R&amp;D 세액공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검토</li> </ul>

자료 : 언론자료 정리

### C30. 조선

## 고환율, 제품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25년 1분기 실적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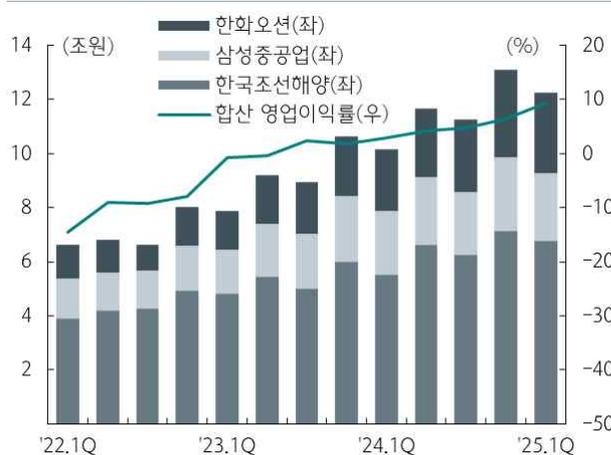
연구원 김종현

※ Summary : 국내 대형 조선3사의 '25년 1분기 실적은 고환율 지속에 따른 환차익과 LNG선 비중 확대 등 제품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하여 전년 동기 대비 향상. 현재 국내 조선사의 수주잔량은 LNG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약 3.5년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중장기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의 군함 MRO 협력 요청과 미국산 에너지 수출용 선박 수요 증가, 중국 선박의 美 항만 입항 규제 등 미국의 정책 방향이 국내 조선소에 반사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신주 수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 국내 대형 조선사의 '25.1Q 실적은 제품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향상

-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계절적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 선박 중심의 건조 물량 증가 등을 바탕으로 YoY 185% 증가
  - 대형 조선사들의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9% 상승한 12.3조원을 기록하였으며, 합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6.5%p 상승한 9.4%를 기록
  -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고부가 선박 비중 확대와 선별 수주 전략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25년 1분기 인도물량 중 LNG선, 컨테이너선 합산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6.7%p 증가
- '21년 이후 수주한 고가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후판 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이 긍정적인 영향
  - 후판가 추이(\$/ton) : 891.4('21) → 896.2('22) → 833.4('23) → 660.1('24) → 619.8('25.1Q)
  - 원/달러 환율(W/\$) : 1,144('21) → 1,292('22) → 1,306('23) → 1,364('24) → 1,452('25.1Q)

그림8 | 국내 대형 조선사의 실적 추이



주 :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연결 기준  
자료 : Valuesearch, 각사 IR, 하나금융연구소

그림9 | '22~'25년 1분기 인도 물량 제품 믹스 추이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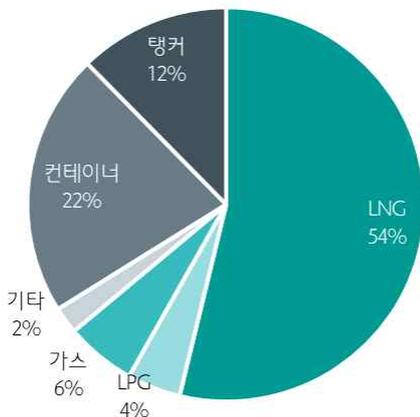
## ■ 고부가 선박 중심의 수주잔량을 바탕으로 '27년까지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전망

- 국내 조선사의 수주잔량은 약 3.5년치 일감을 상회하는 물량이며 LNG선과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향후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의 선종별 비중 : LNG선 54%, 컨테이너선 22%, 탱커 12%, LPG 및 가스 10%
  - 국내 조선사의 인도물량 (백만CGT) : 11.5('24) → 13.3('25) → 10.3('26) → 10.8('27) → 5+α('28)
- 한편, 같은 LNG선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20년 초 카타르 수주 물량을 대다수 인도하였고 앞으로 인도할 LNG선의 선가가 기존 물량보다 높아 건조 수익성 역시 개선될 전망
  - LNG선 선가지수 : 133.9('20) → 158.2('21) → 175.1('22) → 198.1('23) → 207.0('24) → 202.5('25.4)

## ■ 한편,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중국 선박 규제 등으로 국내 조선사의 반사이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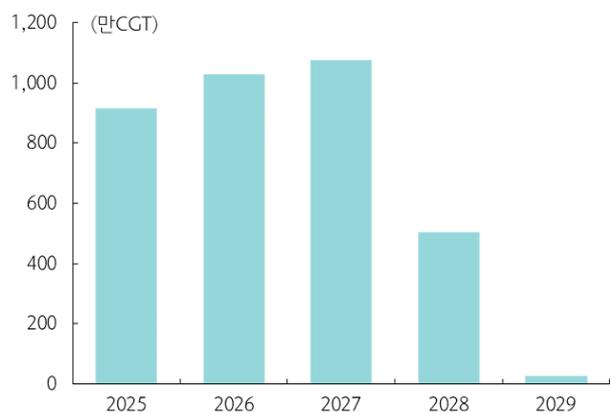
- 트럼프의 화석연료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라 북미 LNG 프로젝트가 활발해지면서 미국산 에너지 수출용 LNG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주요 LNG선 건조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나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LNG선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 조선소에 발주할 것으로 전망
- 美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박 또는 중국계 해운사 선박의 미국 입항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산 선박 대체를 위한 국내 조선소 발주는 확대될 전망
  - 중국 선박 및 선사 가 미국 입항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 내에서 중국산 선박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할 가능성
- '25년 국내 조선사의 신조 수주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높은 수주 잔고와 미국발 반사이익을 바탕으로 고부가 선박 중심의 건조한 수주 흐름이 유지될 전망
  - 신조 수주량 추이 및 전망(만CGT) : 1,052('21) → 781('22) → 922('23) → 1,149('24) → 950('25F) 

그림10 |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의 제품 믹스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그림11 | 국내 조선사의 인도 예정 연도별 수주잔량



자료 : Clarkson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